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회(輪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 한다.
- ② 대장부가 되기 위해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集義]해야 한다.
-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 ④ 소박한 삶을 위해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⑤ 모든 사람을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이 두루 사랑[兼愛]해야 한다.

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실업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의 결과이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철회와 자생적 질서의 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p> <p>을: 실업은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한 총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유효 수요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p>
(나)	<p>→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 <p>← : 예시 (갑) → A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함을 간과한다.
- ② A: 자유방임주의가 효율적 지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B: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함을 간과한다.
- ④ B: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 ⑤ B: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물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들 중에 하등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① 갑: 신(神)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 ② 갑: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한 협정으로서 정의는 불필요하다.
- ③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 ④ 을: 자기희생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선하다.
- ⑤ 갑과 을: 정신적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선유(先儒)들이 성(性)을 말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지금 사람들은 또 더러 착오를 범하고 있다. 살아 있을 때는 성이라고 하고 죽으면 혼(魂)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마음[大體]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다. 성이란 기호(嗜好)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 하는 사례이다.

- ①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 ② 영지(靈知)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
- ④ 형구(形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 ⑤ 신독(慎獨)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仁)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 한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 ① 선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는 수동적 정서에 전혀 예측되지 않는다.
- ②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는 없다.
- ③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활동하므로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 ④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인식해야 자연의 내재적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사유 능력을 지닌 개체는 실체와 분리되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단과 칠정이 모두 정(情)이지만 명청이 다른 이유는 사단과 칠정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가리키는 바가 달라도 모두 점이므로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같은 근원에서 한 가지 길을 따라 발현됩니다.



<보 기>

- ㄱ. 갑: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사랑[愛]은 그 기원[所從來]이 같다.  
ㄴ. 을: 기질의 성(性)과 본연의 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다.  
ㄷ. 을: 천명(天命)의 성은 불변하므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ㄹ. 갑과 을: 마음[心]은 사단과 사덕(四德)을 모두 포괄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현악기에서 한 현의 움직임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 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움직임을 일으킨다.

을: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를 충분한 이유로 내세운다. 이것은 행복의 증대라는 외재적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원리이다.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편에서 행위가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① 갑: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난다.  
② 갑: 도덕감에 의해 파악되는 선악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③ 을: 쾌락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다.  
④ 을: 최대 행복의 원리의 적용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된다.

- ① 갑: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② 갑: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을: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④ 을: 사회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갖는다.  
⑤ 갑과 을: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나는 정치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와 ‘~을 향한 자유’로 구분한다.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 기>

- ㄱ.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ㄴ. 적극적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ㄷ. 소극적 자유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침해될 수 있다.  
ㄹ.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道)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信]이 한결 같은지 헤아려라. 정성[誠]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헤아려라. 공경[敬]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한율님 우러르는 마음을 늦추지 마라.

(나) 천도(天道)의 참됨은 사덕(四德)이요, 인도(人道)의 변치 않는 길은 오륜(五倫)이다.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단이다. 난세를 구하는 길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

- ① (가): 시천주(侍天主)를 위해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② (가):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유교적 신분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③ (나): 천도와 인도의 합일을 위해 유불도(儒佛道)를 융합해야 한다.  
④ (나): 올바른 학문[正學]은 수호하고 서양의 기술은 수용해야 한다.  
⑤ (가)와 (나): 도를 굳건히 지켜 주체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표현 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理]로서 성(性)이 내재이며,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완전한 앎에 이르러야 한다.</p> <p>을: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善)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앎을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천하면 앎이 완전해지니, 이것이 곧 앎과 실천의 합일[知行合一]이다.</p>
(나)	<p>〈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p>

### <보기>

- ㄱ. A: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 ㄴ. B: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求放心].
- ㄷ. B: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격물(格物)이 필요하다.
- ㄹ. C: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養性]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仁)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義)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禮)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을: 인과 의를 잊고 예와 악(樂)을 잊으며, 감각 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坐忘]에 도달할 수 있다.

### <보기>

- ㄱ. 갑: 예법(禮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ㄴ. 갑: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ㄷ. 을: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진인(眞人)이 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선의 행위를 위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예측에만 주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우연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의 도덕적 평가가 성품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성품과 관계없이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돼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고정된 도덕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 ① 쾌락의 예측 결과가 행위에 대한 도덕 평가의 유일한 근거이다.
- ② 행위와 성품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옳다.
- ④ 최선의 행위는 탐구 과정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에서 도출해야 한다.
- ⑤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는 예상과 상이해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 ① 정언 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②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 법칙을 의욕한다.
- ③ 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
- ⑤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천하의 해악은 두루 사랑[兼愛]하지 않으므로 생긴다. 두루 사랑하지 않으므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인다. 재난과 친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 사랑하는 방법뿐이다.

을: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 <보기>

- ㄱ. 갑: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 ㄴ. 갑: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 ㄷ. 을: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 ㄹ. 갑과 을: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가), (나)는 중국 불교 사상이다.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하늘의 달이 진리라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는 데에 손가락을 거쳐서 볼 필요가 없듯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본성을 직관하면[見性]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나) 하나의 생각은 삼천의 세계를 포함[一念三千]하므로 생각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부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일체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관(止觀)의 수행을 해야 한다.

<보기>

- ㄱ. (가):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불성(佛性)을 깨칠 수 있다.  
 ㄴ. (가): 돈오를 통해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임을 알 수 있다.  
 ㄷ. (나):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해석이 중요하다.  
 ㄹ. (가)와 (나): 현상은 공(空)하나 그 이면의 법칙성은 실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비이성적 피조물은 신법을 알지 못하고 자연이 부여한 경향성만 지닐 뿐이다. 반면에 인간은 비이성적 피조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넘어서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신 존재 증명과 같은 철학적 탐구 외에도 신의 계시라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의 계시, 즉 신법을 통해서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 ① 신(神) 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된다.  
 ② 비이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은 항상 옳다.  
 ③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至福]으로 인도할 수 없다.  
 ④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의 원천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어야 한다.  
 ⑤ 내세의 완전한 삶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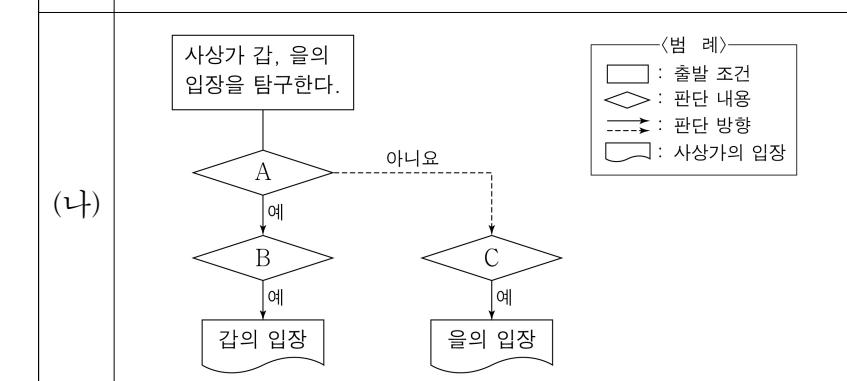
1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命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가 폐지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 (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 버렸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① (가):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노동자의 소외는 지속될 수 있다.  
 ② (가): 계급이 철폐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된다.  
 ③ (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복이 필수적이다.  
 ④ (나): 사회주의 공공 정책을 통해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⑤ (가)와 (나): 개인의 자유 보장 없이 사회주의 이상은 실현 가능하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서로 닮아 있다. 이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품성 상태이다. 정의는 중간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중용이며, 부정의는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극단에 관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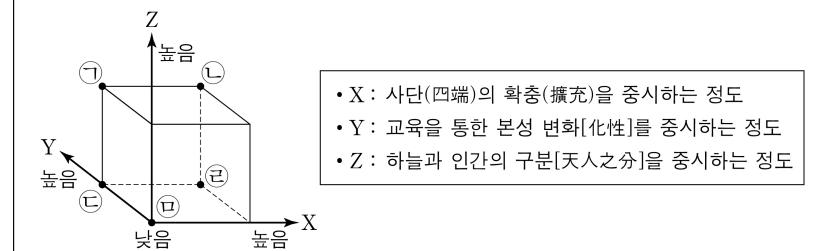


- <보기>
- ㄱ. A: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ㄴ. B: 철학자는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을 지녀야 하는가?  
 ㄷ. C: 실천적 지혜가 정의의 덕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ㄹ. C: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인(仁)이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데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의(義)이다.  
 을: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 교화되어 예의에 따르는 사람은 군자(君子)가 되고, 타고난 성정(性情)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예의를 어기는 사람은 소인(小人)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